

文대통령 “日과 언제든 대화…미래지향 발전에 힘쏟아야”

“역사사지 머리 맞대면 과거 문제 얼마든지 해결”
“도쿄올림픽 한일·남북·북미간 대화 기회 될 수도”
“피해자 중심주의로 해결 모색… 명예 회복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적극적인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거행된 제102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역사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또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다”며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나아가 한일 양국이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회복하고, 더 굳건한 협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

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일문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서 해결 재확인한 문

3·1절 기념사에선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한일 관계 해결 모색이라는 기존의 원칙이 재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되었다”며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과거 식민지의 수치스러운 역사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던 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교훈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며 “이웃나라 간의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3·1 독립운동 → 코로나19 국난 극복 정신으로…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

기념식이 열린 탑골공원은 3·1 독립운동이 시작된 역사적 현장으로, 만세운동과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었던 3·1 운동의 발상지다.

102년 전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고했던 정신을 되살려,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도전을 세계 만방에 선언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내·외 독립운동가 후손과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코로나19 국난 극복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3·1 독립운동은 식민 지배의 수탈로부터 민족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한 운동이었다”며 “100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국난에 함께 맞서는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저력은 한결같다. 한 해를 넘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고 평했다.

이어 “지금 이웃을 위해 매일 아침 마스크를 챙겨 쓰는 국민의 손길과 사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민들의 가슴 깊은 곳에도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다”며 국민 자긍심을 고취했다.

또 “이웃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해 온 국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격려 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며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특수 주사기가 확보되었고, 계획대로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

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 주시고 백신접종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제3지대 단일화 승리한 안철수 “김종인과 만나길 희망”

“야권 힘 합치지 않으면 4월 선거 승리 어려워”
“국힘 후보 만나 지지층 마음 모으자고 할 것”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야권 단일화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안 대표는 이날 오전 무소속 금제섭 전 의원의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 안 대표는 오는 4월 선출될 예정인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손기정 체육공원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3·1운동 정신 계승’ 행사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후보와

만나 어떤 점을 강조할 생각이나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야권 단일 후보를 왜 선출하는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권 단일후보를 통해 이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잘못된 10년간 서울시장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야권의 책임을 맡아서 혁신적 시정을 보여야만 야권에 신뢰가 생기지 않나”라며 “정권교체 교두보를 돕겠다는 게 제 뜻이기도 하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만하게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지지층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치르자는 말을 드리

려고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이 단일후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해본 적이 없다’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1야당의 책임을 맡으신 분이니까 제1야당을 중심에 두고 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라고 평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야권 전체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여당을 이기기 힘든 선거”라며 “어떻게 하면 힘을 합칠 것인가, 힘을 합치기 위해서 원만하고 아름다운 단일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나눌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무엇보다도 과정을 원만하게, 과정에서 잡음이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그리고 또 누가 거기서 뿔뿔이라도 적극적으로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소병철,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정원, 치유·힐링 공간…순천 경제발전 ‘새로운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최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 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제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지난해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외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리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을 두어 박람회 실행과 사후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2013년 첫 박람회 이래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변화한 정원 문화와 정원에 대한 인식, 기대역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데 주력

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반조성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박람회 준비의 물적 포석을 다졌다면, 특별법 발의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명시한 법적 기틀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박람회가 일회적 행사를 넘어, 건강 증진 공간으로서의 외연 확대 등 정원에 기대되는 새로운 역할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일상 속 정원 문화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명력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생태계의 회복과 치유·힐링 등 생활 속 정원의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정원과 정원박람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시작이 되길 바라며, 국가정원을 기반으로 순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